"하틀리2 혜성 구경하세요" 6.46년을 주기로 태양 주위를 도는 하틀리2 혜성(103/P Hartley·화살표)이 10일 새벽 페르세우스 자리 이중성단 곁을 지나고 있다. 이 혜성은 태양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오는 28일 5등급까지 밝아져 육안으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캐논 40D+80~200mm 렌즈·조리개 f 2.8, asa1600·120초·적도의 추적촬영) /영광=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공무원 뇌물죄 '관대'

광주지법·전주지법, 인신자유형 25% 그쳐

전국 평균 33%에 못 미쳐

광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 등 광주고등법원 관할 법원이 공무원의 뇌물범죄에 대한 자유형(징역, 금고 등) 선고율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광주고등법원이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광주고법 산하 지법에 뇌물죄로 기소된 공무원 199명 중 49명(25%)이 인신구속형인 자유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법원의 평균 자유형 선고비율 33%(1647건 중 547건)를 밑도는 것으로, 공무원 범죄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또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은 '뇌물' 공무원에 대한 자유형 선고비율이 각각 24%에 머물러 같은 고등법원 산하의 제주지법(40%)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 가운데 광주지법의 경우 뇌물죄로 기소된 공무원이 2006년 14명에서 2007년 20명, 2008년 23명, 2009년 32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어 공무원 범죄에 대한 단죄의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공직자들의 뇌물 범죄는 국민들에게 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매우 커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법의 잣대로 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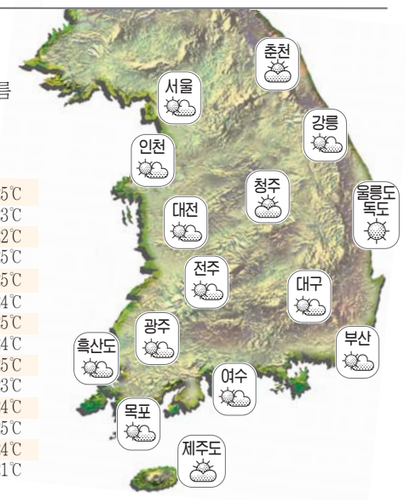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35분 해짐 18시 03분 달뜸 10시 22분 달짐 20시 20분

감기조심하세요

대체로 맑은 후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광 주	구름점차많아짐	14/25℃
목 포	구름점차많아짐	15/23℃
여 수	구름점차많아짐	17/22℃
완 도	구름점차많아짐	15/25℃
구 례	구름점차많아짐	12/25℃
해 남	구름점차많아짐	12/24℃
장 흥	구름점차많아짐	12/25℃
고 흥	구름점차많아짐	13/24℃
순 천	구름점차많아짐	15/25℃
영 광	구름점차많아짐	13/23℃
진 도	구름점차많아짐	13/24℃
전 주	구름점차많아짐	14/25℃
남 원	구름점차많아짐	11/24℃
흑산도	구름점차많아짐	16/21℃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0.5m
먼바다	북동~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0.5m
먼바다	북동~동	0.5~1.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보통	경고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0.5m
먼바다	동~남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0.5m
먼바다	북동~동	0.5~1.0m

	밀물	썰물
목포	03:59 16:46	09:10 21:48
여수	11:14 23:08	04:33 17:1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2(화)	13(수)	14(목)	15(금)	16(토)	17(일)
날 씨						
최저/최고	16/25	13/23	12/21	10/20	9/21	10/21

광주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부족으로 사실상 무산

시 지원 100억 불과 … 시교육청 600억 분담 어려워

내년 광주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하려던 무상급식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소 450억원 이상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데다 재원을 분담지원하는 광주시가 재정형편 때문에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장휘국 교육감 당선자는 올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이어 내년 유치원과 초·중학교 등 2013년까지 유치원부터 초중고교까지 전면 시행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초등학생 3,4,5학년이 추가로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돼 기존 무상급식중인 1,2,6학년을 포함해 연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년 국·공립 유치원부터 초·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최소 900억원의 예산 확보가 사실상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절반을 분담하더라도 광주시 교육청이 450억원 이상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다 인건비 부분을 분담액에서 제외할 경우 600억원 이상이 시 교육청 몫인 셈이다.

더욱이 광주시는 강운태 시장의 단계적 지원 공약과 시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 내년 1~3학년, 2012년 전 초등학교, 2013년 중학교 시행 등을 고수하고 있다.

이 경우 내년 시 교육청에 지원될 예산은 100억원대 안팎에 불과해 사실상 시 교육청이 자체 재원을 확보, 예정대로 무상급식을 확대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자체적으로 무상급식 재원마련을 위해 학교 운영비, 시설비, 교육지원비 등을 축소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 교육청 예산이 대부분 광주시 등 정부 재원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확보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학생수는 유치원 1만7000여명을 비롯해 초등학생 11만6500여명, 중학생 7만여명, 고교생 6만8000여명 등 모두 27만3000명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마이스터교 신입생 모집

마이스터 고등학교로 지정된 광주자동화설비 공업고와 광양 한국항만물류고가 2011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광주자동화설비고는 남·녀공학으로 4학급 80명을 선발하며, 18일부터 22일까지, 100명을 뽑는 한국항만물류고는 18일부터 21일까지 응시원서를 교부·접수한다. 전형은 특별·일반으로 나눠 교과성적 반영비율을 최소화(50% 이하)하는 대신 인성요소(출석·봉사 등), 심층면접(성장가능성·직업적성 등), 기타요소(자격증·자기소개서 등)를 종합해 선발한다.

또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소년소녀가장·차상위계층), 탈북자,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특별전형(10% 이상)도 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민 10명 중 7명

"외국어고 설립 찬성"

코리아정보리서치 조사

광주시민 10명 중 7명이 외국어고 설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남지역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정보리서치(소장 김선희)가 지난 9일 광주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어고 설립 현안에 대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다.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9.2%가 찬성, 20.1%는 반대, 10.7%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응답자 별로는 특목고 진학과 연관이 큰 중학생 이하 가족이 있는 경우 70.2%가 찬성했으며 가족이 없는 경우(68.4%)보다 높았다.

'외고 등 특목고가 특수한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가' 항목에는 응답자 70.1%가 '기여한다', 29.9%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 여론조사는 9일 하루 동안 면접원에 의해 지역인구 비례 군집표본 추출방식을 사용, 1000명(통화시도 7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허용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윤영기기자 penfoot@

교사 408명 선발

전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은 "2011학년도 공립학교(유·초·특·영양)교사 및 사립학교(특수초등) 교사 408명을 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선발 인원은 공립의 경우 유치원 10명, 초등 386명, 초등 특수 7명, 초등 영양교사 3명 등 모두 406명이다. 사립에서는 함평영화학교가 특수 초등교사 2명을 뽑는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이며, 전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1차 시험은 11월13일, 2차는 12월11일, 3차는 내년 1월중에 실시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인권사무소 출범 5주년

1200건 조사·인권조례 '디딤돌'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소장 이정강)가 오는 12일 출범 5주년을 맞는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출범 이후 1200여건의 인권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디딤돌을 놓는 등 '인권지킴이' 역할을 해왔다.

10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광주인권사무소는 지난 2005년 10월 12일 개소 이후 1934건의 진정사건을 접수받아 이 가운데 1195건(61.7%)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 중 인권위 조사대상 563건 중 57건(10.1%)은 권고나 합의종결 등 인용됐으며, 161건(28.6%)은 조사 기간 동안 해결됐다. 인권위 조사대상 사건 10건 중 4건 가량(38.7%)은 권리를 구제받은 셈이다.

광주인권사무소는 또 '광주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광주인권사무소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권교육과 공무원 대상 인권 설명회, 인권영상공모전 등을 통해 인권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 각종 정책제안 업무 수행에 한계를 겪어온 점과 검찰이나 경찰 등 권력기관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조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점 등은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